

## 『논리-철학 논고』의 동일성 개념에 관하여

박 정 일

**【국문요약】**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 ‘동일성’은 여러 중요한 의문들을 불러일으킨다.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이란 무엇인가? ‘등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일성 진술’과 동일한가? 프레게는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대상(들) 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판의 요점은 무엇인가? 요컨대 동일성의 본성에 대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이 글에서 바로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주제분류】** 분석철학, 논리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동일성, 프레게, 러셀, 등식

## 1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로 약칭함)에서 ‘동일성’은 일견 보이는 바와는 달리 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 어려움은 『논고』가 난해한 저작이고 특히 동일성에 대한 『논고』의 서술이 매우 압축적이라는 점에도 있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이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논고』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동일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프레게와 러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은 각각 무엇이며,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어떻게 비판했는가? 또한 동일성의 본성에 대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이 글에서 바로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a’와 ‘b’가 이름이고, ‘그 F’(‘the F’)와 ‘그 G’(‘the G’)가 (러셀이 부르는바) 확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일 때, “a = a”, “a = b”, “a = 그 F”, “그 F = 그 G” 형식의 표현을 동일성 진술(identity statements)이라고 부르자. 가령 ‘김구’와 ‘백범’이 이름일 때, “김구 = 김구”와 “김구 = 백범”은 동일성 진술의 예이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과 ‘『백범일지』의 저자’가 확정 기술일 때,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다”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은 『백범일지』의 저자이다”도 그러한 예이다. 여기에서 “=”은 동일성 기호(Gleichheitszeichen)라고 부른다.<sup>1)</sup>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자. 먼저

1) 비트겐슈타인 또한 “=”을 ‘동일성 기호’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 3.323, 5.53, 5.533.

흥미로운 것은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동일성 진술’과 같은 용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에 그가 『논고』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등식’(Gleichung)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이란 무엇인가? 또한 ‘등식’과 ‘동일성 진술’은 동일한가?

둘째, 잘 알려져 있듯이, 동일성에 대한 현대 분석철학적 논의는 프레게로부터 시작된다.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1892)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동일성은 관계인가? 만일 그것이 관계라면 그것은 대상들 간의 관계인가 아니면 대상들의 이름들이나 기호들 간의 관계인가? 프레게 자신은 『개념표기법』(1879)에서는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라고 간주했지만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1892)에서는 그 대답을 거부하고 대상(들) 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물음들과 프레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응수하고 있는가?

셋째, 러셀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구분을 거부한 후, 『수학 원리』에서 라이프니츠의 구별 불가능한 것들의 동일성 원리(principle of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에 의거하여 동일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이러한 정의에 대해 『논고』에서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셀의 동일성 정의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요점은 무엇인가?

넷째, 『논고』에 따르면 동일성 기호 ‘=’는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다. 그리하여 “ $a = a$ ”나 “ $a = b$ ”와 같은 표현은 사이비 명제이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수학은 등식들로 이루어지며, 등식은 “ $a = b$ ”의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서는 수학의 등식들에 나오는 동일성 기호들도 모두 제거될 것이며, 결국 수학의 등식들도 모두 제거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애초에 수학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또는 러셀이 말하듯, 수리논리학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답하고자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다. 나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논고』에서 등식은 동일성 진술과 다르다. 등식은 동일성 기호 양변에 나오는 표현들의 사용에 대한 규칙이며, 그 표현들의 의미나 지시체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2절). 그런데 프레게와 러셀은 어떤 동일성 진술은 경험적인 명제라고 간주한다(3절).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성은 세계에 존재하는 속성이나 관계가 아니다. 그리하여 세계에 속하는 사물(들)에 관하여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4절).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을 사물들 간의 관계로, 또는 한 사물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러셀의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5절). 더 나아가 『논고』에 따르면, 동일성에 대한 정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사물(들)에 대해서 ‘동일성’을 부여하는 동일성 진술은 “묘사의 미봉책”일 뿐이다. 그리하여 동일성 진술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사유는 불필요한 철학적 혼동을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6절). 『논고』에 따르면 비록 등식은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는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 등식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대상”과 “대상의 동일성”은 한 사물의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을 함축하지 않는다(7절).

## 2

비트겐슈타인이 동일성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비트겐슈타인 자신에게도 실로 어려운 것들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우리는 그가 1913년 10월 29일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성은 정말로 악마(the very Devil)이고 **엄청나게 중요하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훨씬 더 그러합니다. 그것은—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가장 근본적인 물음들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특히 한 함수의 상이한 자리들에서 **동일한** 논항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된 물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확정적인 것에도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sup>2)</sup>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동일성은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들과 관련이 있고, 특히 “한 함수의 상이한 자리들에서 **동일한** 논항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된 물음들”과 관련이 있다. 가령 한 명제 함수  $xRy$ (예컨대 “ $x$ 는  $y$ 를 사랑한다”)에서 상이한 자리  $x$ 와  $y$ 에 각각 동일한 논항  $a$ 가 나오는  $aRa$ 의 경우에 생겨나는 물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성의 본성에 관한 물음은 비트겐슈타인에게는 “논리학의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그는 1913년 12월 15일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일성의 본성에 대한 물음은 동어반복들의 본성이 설명된 후에야 비로소 대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모든** 논리학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sup>3)</sup>

그렇다면 『논고』에서의 동일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는 먼저 등식(Gleichun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두 기호를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나는 이것을 그 두 기호 사이에 “=” 기호를 놓음으로써 표현한다.

---

2) Wittgenstein (1961), p. 122.

3) Wittgenstein (1961), p. 128.

“ $a = b$ ”는 그러니까, 기호 “ $a$ ”가 기호 “ $b$ ”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heißt).

(내가 등식에 의해 새로운 기호 “ $b$ ”를 도입하여,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기호 “ $a$ ”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확정한다면, 나는 그 등식-정의-을 (러셀처럼) “ $a = b$  Def.”의 형식으로 쓴다. 정의는 하나의 기호 규칙이다.) (4.241)<sup>4)</sup>

『논고』에서 동일성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언급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고』에서의 동일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언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먼저 위의 언급에서 비트겐슈타인이 “ $a = b$ ”와 같은 표현을 ‘등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그렇다면 “ $a = b$ ”와 같은 표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이 점에 대해 내가 가령 기호 ‘ $a$ ’와 기호 ‘ $b$ ’를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나는 그 두 기호, 즉 ‘ $a$ ’와 ‘ $b$ ’ 사이에 “ $=$ ” 기호를 놓음으로써, 다시 말해 “ $a = b$ ”라고 함으로써 “내가 그 두 기호를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내가 “ $a = b$ ”라고 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 두 기호를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언어 사용에 관한 **경험적인 사실**이지만, “ $a = b$ ”가 뜻하는(heißt) 것은 언어 사용에 관한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규정**이라는 것을 유념하자. 왜냐하면 이어지는 위의 언급에서 비트겐슈타인은 ““ $a = b$ ”는 그러니까, 기호 “ $a$ ”가 기호 “ $b$ ”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문장에서 “대체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두 기호, ‘ $a$ ’와 ‘ $b$ ’를 서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는 경험적 사실이

4) 이 글에서는 『논고』의 번역으로 대부분 비트겐슈타인, 2006, 이영철 옮김을 따르고 있다.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언어 사용(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적·구문론적 사용”(3.327))의 규칙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sup>5)</sup>

그리고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 $a = b$  Def.”와 같은 정의도 하나의 등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의는 정의항(즉 “이미 알려져 있는 기호”) ‘a’로 피정의항(즉 “새로운 기호”) ‘b’를 정의하는 상황에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정의는 하나의 기호 규칙이다.” 다시 말해 등식은 기호 규칙, 즉 논리적·구문론적 사용의 기호 규칙이다.<sup>6)</sup>

이제 우리는 위의 인용문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호와 상징(표현)을 구분한다. 상징(표현)이란 “명제의 뜻을 특징짓는 명제의 각 부분”(3.31)이며, 기호는 “상징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3.32)이다. 또한 “기호에서 상징을 알아내려면, 우리들은 뜻이 있는 쓰임에 유의해야 한다.”(3.326) 이제 위의 인용문에서 문제가 되는 ‘기호’는 논리적·구문론적 사용과 관련 있는 것임을 주목하자. 따라서 위의

---

5) 가령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자. “내가 ‘가위’와 ‘보’를 가위바위보 놀이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나는 이것을 “가위>보”로 표현한다. “가위>보”는 그러니까, 가위가 보를 이긴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 “이것”은 내가 ‘가위’와 ‘보’를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지시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가위>보”가 뜻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기호 사용의 규칙이다. 이 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확실하게도 기호-규칙들, 예컨대 정의들을 기호들에 관한 명제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명제들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man muß sie gar nicht als Sätze auffassen). 그것들은 언어의 장치들에 속한다. 언어의 명제들과는 다른 종류의 장치들 [말이다].”(Wittgenstein (1964), p. 143, Wittgenstein (1975), p. 143)

6) 비트겐슈타인은 이 점에 대해 술리크 및 바이즈만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등식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호 규칙이다.” (Wittgenstein (1979a), p. 158)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상징(표현)을 다루고 있다.<sup>7)</sup>

둘째,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A”는 “A”와 동일한 기호이다”(3.203). 비트겐슈타인은 위의 언급에서 등식에 대해 해명할 때 **두 개의 기호(상징)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비트겐슈타인은 등식에서 좌변에 나오는 기호와 우변에 나오는 기호가 서로 다른 경우만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일한 경우는 다루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는 등식 “ $a = b$ ”만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 $a = a$ ”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 $a = a$ ”가 ‘등식’인가 하는 점은 열려 있다.<sup>8)</sup>

셋째, 등식 “ $a = b$ ”에 나오는 두 상징 ‘a’와 ‘b’는 (『논고』에서의) 어떤 대상의 이름일 수도 있고, 복합체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으며(왜냐하면 정의는 하나의 등식이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체의 상징을 단순한 상징으로 요약하는 일은 정의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3.24d)라고 말했으므로), (수와 같은) 어떤 형식적 개념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위의 언급에서 두 상징 ‘a’와 ‘b’는 세계에 속하는 사물의 이름이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

7) 참고: Muehlmann, (1969), pp. 229-230. Muehlmann(1969)은 비트겐슈타인이 5.53에서 “기호”를 비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상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호”가 사용되는 맥락(4.241)을 검토하면 바로 그 “기호”가 “상징”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이 점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청색책』에서는 “ $a = a$ ”는 ‘등식’이지만, “ $a = b$ ”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circ$ 라는 증명에서 우리는 “ $a = a$ ’,  $\beta = \beta$ ’,  $\gamma = \gamma$ ”라고 말한다. 첫 번째 두 등식은 세 번째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이다.”(121쪽)) 한편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강의, 케임브리지, 1932-193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리식 “ $a = a$ ”는 동일성 기호를 특수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a가 a에 대입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Wittgenstein (1979b), p. 207) 또한 『철학적 문법』에서는 “ $a = a$ ”를 “옳은 퇴화된 등식”이라고 부르고 있다(참고: Wittgenstein (1974), p. 317).



식적 개념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제한도 주어지지 않았다.<sup>9)</sup>

요컨대 등식 “ $a = b$ ”는 우리가 두 상징 ‘a’와 ‘b’를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기호 규칙이며, ‘a’와 ‘b’의 의미나 지시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sup>10)</sup> 다시 말해 등식 “ $a = b$ ”는 상징에 관한 우리의 사용 규칙일 뿐이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세계나 실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은 위의 인용문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 $a = b$ ” 형식의 표현들은 단지 묘사의 미봉책일 뿐이다; 그것들은 기호 “a”, “b”의 의미에 관해서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 (4.242)

두 이름이 동일한 사물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두 개의 상이한 사물을 지칭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도 우리가 그 두 이름을 이해할

- 
- 9) Black(1962)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4.24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언급(section)과 다음 두 언급에서, W.[비트겐슈타인]는 분명하게도 (apparently) 순수 이름들만을 연결하는 등식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Black, (1962), p. 210)
- 10)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노르웨이에서 무어에게 구술한 단상들”(1914년 4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는 1913년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 $(\exists x) x = x$ ”와 같은 명제가 “물리학의 명제”라고 말한다(Wittgenstein (1961), p. 127). 그리고 “논리학에 관한 단상들”(1913년 9월)에서 그는 “그러나 명제 “ $(x).x = x$ ”가 존재하며, 또 “소크라테스 = 소크라테스” 등과 같은 명제들도 존재한다.”(Wittgenstein (1961), p. 103)라고 말한다. 그러나 약 7개월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명제가 뜻을 지니느냐 하는 물음은 결코 그 명제의 구성 요소에 관한 다른 명제의 참에 의존할 수 없다. 예컨대  $(x) x = x$ 가 뜻을 지니느냐 하는 물음은  $(\exists x) x = x$ 가 참이냐 하는 물음에 의존할 수 없다. 그것은 실재를 전혀 기술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오직 상징들만을 다룬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이 기호화(지칭, symbolize)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며 그것들이 기호화(지칭)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Wittgenstein (1961), p. 116)

수 있는가?—두 이름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도 우리가 그 두 이름이 나타나는 명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가령 어떤 영어 낱말의 의미와 그것과 같은 의미의 어떤 독일어 낱말의 의미를 안다면, 그 두 낱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것들을 서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a = a$ ”와 같은 표현들이나 이런 표현들로부터 도출된 표현들은 요소 명제들도 아니요 그 밖에 달리 뜻이 있는 기호도 아니다. (이 점은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4.243)

이 두 인용문에는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도 있고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먼저 쉬운 부분부터 검토해 보자. 가령 우리는 ‘김구’와 ‘백범’이 김구라는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그 두 이름을 이해한다. 반면에 그러한 것을 모른다면 그 두 이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구 = 백범”이라는 등식은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김구’와 ‘백범’이라는 표현만 보아도 알기 때문이다.<sup>11)</sup>

위의 두 인용문에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 $a = b$ ” 형식의 표현들은 “단지 묘사의 미봉책일 뿐이다.” 여기에서 도대체 “묘사의 미봉책”이란 무엇인가? 또한 그는 왜 4.242에서 “ $a = b$ ”를 “등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 $a = b$ ” 형식의 표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4.242에서 “그러므로”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11)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6.232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프레게는 그 두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상이한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등식에서 본질적인 것은, 동일성 기호가 결합시키는 두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등식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점은 그 두 표현 자체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6.232)

정확하게 여기에서 전제는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우리는 4.242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더구나 그는 “ $a = a$ ”와 같은 표현들은 요소 명제도 아니며, 더 나아가 뜻 있는 기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은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논고』 어디에서 그 점을 해명했는가?

## 3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앞에서 우리는 등식 “ $a = b$ ”는 두 기호 ‘a’와 ‘b’에 대한 논리적·구문론적 사용을 위한 기호 규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명시적으로 **두 기호**에 대해서 말했음을 주목하자. 그러한 등식은 그 두 기호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당혹스럽게도 “ $a = a$ ”를 언급하고 있다. 과연 이것은 등식인가?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는 2개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 ‘a’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 $a = a$ ”와 같은 표현들은 요소 명제들도 아니고 뜻 있는 기호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점은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점을 『논고』 어디에서 밝혔는가? 더 나아가 그는 “ $a = b$ ” 형식의 표현들은 “묘사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묘사의 미봉책”(Behelfe der Darstellung)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물음들은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일성 진술과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이 동일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비트겐슈타인이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을 어떻게 비판했느냐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

기 때문이다.

먼저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의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프레게는 『개념표기법』(1879)에서는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라고 간주하였지만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1892)에서는 그 대답을 거부한다. 그가 『개념표기법』에서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라고 간주하였던 이유는 가령, “셋별 = 셋별”과 “셋별 = 개밥바라기”가 인식적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전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소한 문장인데 반해, 후자는 천문학적 발견을 기록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만일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면 (‘셋별’과 ‘개밥바라기’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그 인식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프레게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 동일성이 기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기호와 지시체 간의 관련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산출 가능한 사건이나 대상을 어떤 것에 대한 기호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sup>12)</sup> 즉 동일성 진술이 기호에 관한 것이라면 기호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셋별 = 개밥바라기”는 (케니(A. Kenny)가 지적하듯이) “천문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전상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될 것”<sup>13)</sup>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를 구분한다.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지시체는 동일하지만(즉 지시체는 둘 다 금성이지만) 뜻(즉 제시 방식)은 다르다.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프레게는 “셋별 = 셋별”과 “셋별 = 개밥바라기”의 인식적 차이가 해명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셋별은 셋별이다”와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둘 다 참이지만(그리하여 각각의 문장의 지시체는 참이지만), 그

12) Frege (1997), p. 152.

13) 안토니 케니(2002), p. 182. 참고: Linsky(1983), p. 7.

뜻, 즉 사상은 다르다.<sup>14)</sup>

동일성에 대한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동일성 진술은 경험적인 명제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는 “a = b” 형식의 어떤 문장들(“셋별 = 개밥바라기”와 같은 동일성 진술들)을 경험적인 명제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러셀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구분을 거부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동일성 진술에 대한 프레게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 즉 프레게가 동일성 진술이 지시체(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셀 또한 동일성 진술은 대상(사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프레게가 “a = b” 형식의 어떤 문장들이 경험적인 명제라고 간주하였던 것처럼, 러셀은 “a = 그 F”와 같은 형식의 어떤 문장들은 경험적인 명제라고 생각한다. 가령 “김구는 『백범일지』의 저자이다”(이를 “a = 그 F”로 기호화하자.)라는 동일성 진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김구’를 ‘a’로 기호화하고, ‘...는 『백범일지』를 썼다’를 ‘f’로 기호화하자. 그러면 그 동일성 진술(a = 그 F)은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호화된다.

$$(\exists x)(fx \ \& \ (y)((fy \supset x = y) \ \& \ fa))$$

그리고 이는 다음과 동치이다.

$$fa \ \& \ (x)(fx \supset x = a)$$

요컨대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김구는 『백범일지』의 저자이다”라는 동일성 진술은 “김구는 『백범일지』를 썼고, 오직 김구만이

14) 참고: 박정일 (2013), pp. 350-357.

『백범일지』를 썼다”로 분석된다. 이제 이 동일성 진술이 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fa(즉 “김구는 『백범일지』를 썼다”)가 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에게 그 동일성 진술은 선행적인 명제가 아니라 경험적인 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동일성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과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프레게와 러셀은 어떤 동일성 진술은 경험적인 명제로 간주한다. 반면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은 어떤 경우에도 경험적인 명제가 아니다. 또한 프레게와 러셀은 동일성 명제는 대상이나 지시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은 상징들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을 위한 기호 규칙이다.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에게 “셋별 = 개밥바라기”는 묘사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만일 그것이 등식이라면 그것은 결코 묘사가 아니다. 즉 등식으로서 그것은 세계에 속하는 어떤 사실이나 사태도 묘사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러한 표현은 묘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프레게와 러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험적인 명제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묘사로 간주된다면, 그 표현의 뜻은 애매한 것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문학적 발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셋별’과 ‘개밥바라기’라는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언어사용의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 그 내용이나 뜻은(즉 그 해석에 해당되는 경험적 사실은) 사실상 동일성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표현될 수 있다. 가령 천문학적 사실과 관련되는 경우, “셋별 = 개밥바라기”는 “금성은 아침에는 그러한 위치에서 관측되고 저녁에는 그러한 위치에서 관측된다”거나 “금성은 아침에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며 그러그러한 운동을 한 후에 저녁에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다”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으며, 언

어 사용의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은 금성을 아침에 관측될 때에는 ‘셋별’이라고 부르고 저녁에 관측될 때에는 ‘개밥바라기’라고 부른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셋별 = 개밥바라기”가 묘사라면 그것은 좋은 묘사도 아니고 정확한 묘사도 아니며(“=”을 사용하지 않는 더 정확한 묘사가 있으며), 그저 묘사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에 대해 프레게와 러셀은 우리가 어떤 동일성 진술들을 경험적 명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셋별 = 개밥바라기”와 “김구 = 『백범일지』의 저자”는 모두 묘사에 해당된다고, 즉 경험적 명제라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가령 “셋별은 아주 밝다”가 셋별에 대해 어떤 것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이다(ist)”가 **동일성 기호인 한**,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셋별이나 개밥바라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이다(ist)”가 동일성 기호일 때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셋별이나 개밥바라기에 대해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가?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이러하다: 동일성은 사물(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동일성은 한 사물의 속성도 아니고, 사물들 간의 관계도 아니며, 한 사물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아니다.

#### 4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이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며, 사물(들) 간의 관계도 아니고 한 사물의 속성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였는가? 그 방법은 바로 『논고』의 “근본 사상”과 관련이 있다.

명제의 가능성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원리에 의거한다.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다. 즉, 사실들의 논리는 대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4.0312)

『논고』의 근본 사상에 따르면 “논리적 상항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 가령 ‘~’과 같은 논리적 상항은 세계에 실재하는 어떤 대상도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 사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함수와 연산을 구분한다. 함수는 그 자신의 논항이 될 수 없는 것(3.333)인 반면에, 연산의 결과는 그 자신의 토대가 될 수 있다(5.251). 그 다음으로 비트겐슈타인은 부정과 같은 논리적 상항을 연산으로 파악한다(5.2341). 가령 “~~p”는 “~”이라는 연산을 두 번 “p”에 적용한 결과이다(5.32).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연산은 사라질 수 있다. “연산은 사라질 수 있다(예를 들면 “~~p”에서의 부정: ~ ~ p=p).” (5.254) 요컨대 ~ ~ p는 p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따라서 “~”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는 실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만일 “~”이라고 불리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p”는 “p”와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전자는 ~을 다루는데, 후자는 그것을 다루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5.44d)

또한 “~”나 “ $\supset$ ” 등에 대해서 교차적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왼쪽이나 오른쪽과 같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sup>15)</sup> 다시 말해 “ $p \supset q$ ”와 “ $\sim p \vee q$ ”가 동치라는 점, 또 “ $p \vee q$ ”와 “ $\sim p \supset q$ ”가 동치라는 점은 “ $\supset$ ”, “ $\vee$ ” 등이 실제로 세계에

15) “ $\vee$ ,  $\supset$  등등이 왼편, 오른편 따위와 같은 뜻에서의 관계들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적 “원초 기호들”에 대한 교차적 정의의 가능성은 그것들이 원초 기호들이 아니라는 것, 더구나 그것들이 관계들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과 “ $\vee$ ”에 의해서 정의하는 “ $\supset$ ”는 우리가 “~”과 함께 “ $\vee$ ”를 정의하는 “ $\supset$ ”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 $\vee$ ”는 처음의 “ $\vee$ ”와 동일하다는 것 등등은 명백하다.” (5.42)



속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떤 규약이나 사용에 따라 “ $\sim p$ ”라는 기호가  $p$ 를 뜻하고 “ $p$ ”라는 기호가  $\sim p$ 를 뜻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 $p$ ”라는 기호와 “ $\sim p$ ”라는 기호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 $\sim$ ”이라는 기호에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4.0621) 그리하여 “여기서 (프레게와 러셀의 뜻에서의) “논리적 대상들”이나 “논리적 상황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다.”(5.4)<sup>16)</sup>

논리적 상황 ‘ $\sim$ ’에 대한 바로 이러한 생각은 동일성 기호 ‘ $=$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다음의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외견상의 논리적 상황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일은 “ $\sim(\exists x).\sim fx$ ”가 “ $(x).fx$ ”와 동일한 것을 말할 때, 또는 “ $(\exists x).fx, x = a$ ”가 “ $fa$ ”와 동일한 것을 말할 때에도 역시 발생한다. (5.441)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 $\sim\sim p$ ”의 부정 기호 ‘ $\sim$ ’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sim\sim p$ 와  $p$ 가 동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exists x).fx, x = a$ ”의 동일성 기호 ‘ $=$ ’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 $(\exists x).fx, x = a$ ”와 “ $fa$ ”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이 점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일기 1914-191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x = y$ ”는 명제 형식이 아니다. (귀결들.)  
 “ $aRa$ ”가 “ $aRb. a = b$ ”와 동일한 지시체를 지닐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 완전히 분석된 표기법에 의해서 사이비 명제 “ $a = b$ ”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위의 언급이 옳다는 것에 대한 최선의 증명.<sup>18)</sup>

16) 참고: 박정일 (2013), pp. 357-362.

17) 참고: “요소 명제에는 실로 이미 모든 논리적 연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 $fa$ ”는 “ $(\exists x).fx, x = a$ ”와 동일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5.47)

이 언급에서 비트겐슈타인은 “ $x = y$ ”가 명제 형식이 아니고, 그리하여 “ $a = b$ ”가 명제가 아니라 사이비 명제일 뿐이라는 것을 동일성 기호 “ $=$ ”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를 “최선의 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a = b$ 인 경우에,<sup>19)</sup> “ $aRb. a = b$ ”와 “ $aRa$ ”는 동치이다. 또는 “ $aRa. a = a$ ”와 “ $aRa$ ”는 동치이다. 그리하여 “ $a = b$ ”나 “ $a = a$ ”는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 $\sim$ ’에 대한 (5.44d의) 생각은 그대로 ‘ $=$ ’에도 적용된다. “ $aRa$ ”와 “ $aRa. a = a$ ”는 동치이며 동일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만일 “ $=$ ”이라고 불리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 $aRa. a = a$ ”는 “ $aRa$ ”와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전자는  $=$ 을 다루는데, 후자는 그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 $(\exists x).fx, x = a$ ”와 “ $fa$ ”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 $=$ ’은 세계에 실재하는 어떤 속성이나 관계도 가리키지 않는다.<sup>20)</sup> 그리하여 그것은 세계에 속하는 어떤 대상도 가리키지 않는다.<sup>21)</sup> 그렇다면 ‘ $=$ ’은 이름이 아니다. 따라서 ‘ $a$ ’와 ‘ $b$ ’가 대상의 이름일 때 “ $a = b$ ”는 이름들의 연쇄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연쇄(4.22)이므로) 요소 명제도 아니고 뜻이 있는 기호(명제)도 아니다. 더 나아가 “ $x = y$ ”는 명제 형식이 아니다.

18) Wittgenstein (1961), p. 19.

19) 엄밀하게 말하면 “ $aRa$ ”와 “ $aRb. a = b$ ”는 동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a = b$ 가 거짓인 경우에는 전자는 참이면서 후자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 Muehlmann(1969) 또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존재론적으로 동일성과 다름이라는 관계들과 같은 존재자들(entities)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Muehlmann (1969), p. 229)

21) 『논고』에서는 속성이나 관계도 대상임을 유념하자. 참고: 박정일 (2015).

## 5

앞에서 우리는 “ $a = a$ ”에서와 같이 하나의 기호가 문제되든 아니면 “ $a = b$ ”에서와 같이 두 개의 기호가 문제되든지 간에 그러한 표현들은 뜻이 없으며 요소 명제가 아니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 $aRa \ \& \ a = a$ ”는 “ $aRa$ ”와 동치이기 때문에 “ $a = a$ ”는 사라질 수 있으며, ‘=’은 세계에 실재하는 어떤 대상(속성, 관계)도 가리키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결론을 5.5301, 5.5302, 5.5303에서 명시적으로 정리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논의하기로 하자.

동일성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예컨대 “ $(x):fx \supset x=a$ ”라는 명제를 고찰해 보면 매우 분명해질 것이다. 이 명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오직  $a$ 만이 함수  $f$ 를 만족시킨다는 것이지,  $a$ 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는 오직 그런 사물들만이 함수  $f$ 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은 정확히  $a$ 만이  $a$ 에 대해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표현하려면 우리는 동일성 기호 자체를 필요로 할 것이다. (5.5301)

앞에서 우리는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 $a = \text{그 } F$ ”와 같은 형식의 문장이  $fa \ \& \ (x)(fx \supset x = a)$ 로 분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논리식의 오른쪽 연언지  $(x)(fx \supset x = a)$ 를 문제 삼고 있다. “ $a = \text{그 } F$ ”에서의 동일성은 결국  $(x)(fx \supset x = a)$ 에서 주어진다(왜냐하면 왼쪽 연언지  $fa$ 는 동일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 명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오직  $a$ 만이 함수  $f$ 를 만족시킨다는 것이지,  $a$ 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는 오직 그런 사물들만이 함수  $f$ 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 $a = \text{그 } F$ ”에서의 동일성은 사물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sup>22)</sup>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동일성 진술 “ $a = \text{그 } F$ ”를 분석하면,  $fa \ \& \ (x)(fx \supset x = a)$ 에서 보이듯이, **다시** 동일성 기호가 등장한다는 것이다.<sup>22)</sup> 따라서 혹자는 진정한 동일성 진술은 “ $a = \text{그 } F$ ”와 같이 확정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유 이름들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동일성 기호는 “ $a = \text{그 } F$ ”에서의 ‘=’이 아니라 오히려  $(x)(fx \supset x = a)$ 에서의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은 정확히 **a만이** a에 대해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표현하려면 우리는 동일성 기호 자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 a만이 a에 대해 어떤 관계 R을 가진다고 말하기 위해 가령  $(x)(y)((xRy \supset x = y) \ \& \ x = a)$ 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동일성 기호 ‘=’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러셀의 기술 이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만일 “ $a = \text{그 } F$ ”가 등식이라면, 이는 상징 ‘a’와 ‘그 F’에 대한 우리의 기호 규칙이며 결코 경험적 명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어떤 “ $a = \text{그 } F$ ”는 경험적 명제이다. 즉 러셀은 등식 “ $a = \text{그 } F$ ”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묘사의 미봉책으로서의 “ $a = \text{그 } F$ ”를 분석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식에 관한 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기술 이론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언급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동일성이

22) 비트겐슈타인이 5.5301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동일성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White(1978)는 비트겐슈타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후자라고 오해하고 있다. 참고: White(1978), p. 166.

23) White(1978) 또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White(1978), pp. 166-167.

대상들에 관한 것이며, 대상들 간의 관계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 $a = \text{그 } F$ ”는 사물들에 관한 진술이 될 것이다. 즉 “ $a = \text{그 } F$ ”는 경험적 명제가 될 것이고,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라 분석되면 동일성은  $(x)(fx \supset x = a)$ 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설령 “ $a = \text{그 } F$ ”에 대한 러셀의 생각과 기술 이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은 대상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리하여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 $a = \text{그 } F$ ”와 같은 형식의 동일성 진술이 아니라 “ $a = a$ ”나 “ $a = b$ ”와 같이 **이름들만** 등장하는 동일성 진술을 문제 삼는다. 더 나아가 그는 “정확히 **a만이** a에 대해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성이 사물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이 자신과 갖는 관계인지를 문제 삼는다.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5.5301에 이어서 곧바로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를 다룰 때 옆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러셀은 동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한다.

$$a = b. = : (\phi):\phi!a. \supset. \phi!b : \text{Def.}$$

러셀에 따르면, “우리[러셀과 화이트헤드]는 ‘x는 y와 동일하다’를 ‘y는 x의 모든 서술적(predicative) 속성들을 지닌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sup>24)</sup> 즉 두 대상 a와 b는 만일 그것들이 서술적 속성들을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동일하다.<sup>25)</sup> 이때  $\phi!$ 는 서술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서술적 속성이란 속성들의 어떤 총체(totality)도

24) Russell (1959), p. 115.

25) 또한 러셀은 『수학 원리』에서는 “이 정의는 x에 의해 만족되는 각각의 모든 서술적 함수가 y에 의해서도 만족될 때 x와 y는 동일하다고 불린다는 것을 진술한다.”(Russell & Whitehead (1910), p. 176)라고 말하고 있다.

가리키지 않는 속성이다.<sup>26)</sup>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에 대한 러셀의 정의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정의에 따르면 우리들은 2개의 대상이 모든 속성들을 공통으로 가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명제는 비록 옳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가지고 있다.) (5.5302)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동일성 정의에서 2개의 대상이 등장하는 경우, 정의항은 뜻이 있는 명제라고 말하고 있다. 가령 어떤 세계  $W$ 에 2개의 대상  $a$ 와  $b$ 만 존재하고, 또 세 개의 속성들  $f$ ,  $g$ ,  $h$ 만 존재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fa$ ,  $fb$ ,  $ga$ ,  $gb$ ,  $ha$ ,  $hb$ 가 모두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a$ 와  $b$ 는 모든 서술적 속성들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즉  $a$ 의 모든 속성은  $f$ ,  $g$ ,  $h$ 이고 또 그것뿐이며,  $b$ 의 모든 속성도  $f$ ,  $g$ ,  $h$ 이고 또 그것뿐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는 2개의 대상이 모든 (서술적) 속성들을 공통으로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sup>27)</sup>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2개의 대상들이 모든 속성들을 공통으로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참일 수 있으며 그리하여 2개의 대상들이 모든 속성들을 공통으로 가진다는 명제는 뜻을 지닌다.<sup>28)</sup>

<sup>26)</sup> Russell (1959), p. 114.

<sup>27)</sup> 이 점에 대해 램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러셀의] 정의는 두 개의 사물들이 그것들의 모든 요소 속성들(elementary properties)을 공통으로 지니는 것을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비록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가능하다. 두 개의 사물들  $a$ 와  $b$ 를 취하기로 하자. 그러면  $a$ 가 요소 속성들의 자기 일관적인 어떤 집합을 지니는 것에도, 또  $b$ 가 이 집합을 지니는 것에도 어떤 자기 모순적인 것도 없으며, 그러므로 명백하게도,  $a$ 와  $b$ 가 둘 다 그것들을 지니는 것에도, 그리하여  $a$ 와  $b$ 가 그것들의 모든 요소 속성들을 공통으로 지니는 것에도 자기 모순적인 것은 없다.”(Ramsey (1931), p. 31)

반면에 러셀은 2개의 대상 a와 b는 결코 모든 서술적 속성들을 공유할 수는 없다고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2개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수학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별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말로 그[라이프니츠]가 그것들의 모든 속성들에 관하여 일치하는 두 대상을 의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x의 속성들 중 하나는 x와 동일함(to be identical with x)이고, 그러므로 이 속성은 만일 x와 y가 그것들의 모든 속성들에서 일치한다면 필연적으로 y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9)</sup> 요컨대 두 대상 a와 b가 존재한다면, “a와 같음”이라는 속성은 a의 속성이고 이 속성을 b는 가질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두 대상 a와 b에 대해서, “b와 다름”이라는 속성은 a의 속성이고, 이 속성을 b는 가질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만일 다름(diversity)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만일 a와 b가 둘이라면, a는 b가 갖지 않은 속성, 즉 b와 다름(being diverse from b)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sup>30)</sup>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에서 다루어지는 대상

28) 이영철 교수는 5.5302에 대한 옮긴이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학 원리》 1권 \*13에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x에 의해 만족되는 모든 가술적 함수가 y에 의해서도 역시 만족될 때, x와 y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x에 의해 만족되는 모든 함수가 y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고 진술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은, 러셀의 두 번째 문장에서 금지시킨 그 진술은 비록 옳지는 않더라도 뜻은 지니며, 따라서 논리상으로는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비트겐슈타인, 2006, 이영철 옮김, p. 85) 이러한 이영철 교수의 생각은 마치 “금지시킨” 두 번째 문장만을 비트겐슈타인이 문제 삼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첫 번째 문장을 더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다. 즉 그 속성이 서술적 속성이든 비서술적 속성이든 러셀 식의 동일성에 대한 정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 Russell & Whitehead (1910), p. 60.

30) Russell (1959), p. 115.

은 2개가 아니라 하나일 뿐이다. 이 경우에 러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 = a. = : (\phi):\phi!a. \supset. \phi!a : \text{Def.}$$

여기에서 정의항  $(\phi):\phi!a. \supset. \phi!a$ 는 비트겐슈타인의 『논고』에 따르면, 동어반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fa \supset fa$ 와 같은 형식의 논리식들의 연언(논리곱)인데,<sup>31)</sup>  $fa \supset fa$ 는 동어반복이고 또 그러한 논리식들의 연언도 동어반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 $a = a$ ”는 러셀의 정의에 따르면 동어반복이므로, 『논고』에 따르면 “현실의 그림”이 아니며, “어떤 가능한 상황도 묘사하지 않는다.”(4.462)

요약하자면, 설령 러셀의 기술 이론이 옳을지라도 “ $a = \text{그 } F$ ”와 같은 동일성 진술에서의 동일성은 2개의 대상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만일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에서와 같이 “ $a = b$ ”와 같은 동일성 진술이 2개의 대상을 다루고 있다면 이러한 정의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 $a = b$ ”는 등식이고 우리의 기호 규칙인데, 러셀의 정의에서 정의항은 뜻이 있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러셀의 정의에서 하나의 대상의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을 다루고 있다면 그 경우에 “ $a = a$ ”는 동어반복이 되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sup>32)</sup>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우 “ $a = a$ ”가 뜻 없는

31) 참고: 박정일 (2014).

32) 램지는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는 잘못된 해석(misinterpretation)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낱말 ‘동일한’의 뜻에서 러셀의 동일성의 기호를 사용한다면—그리고 이것은 러셀의 의도이다—그러면 우리는 ‘ $(\exists x).x=x$ ’와 같은 논리식이 사물들(things)이 존재한다는 것, ‘아무것도 없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련의 논리식들을 형성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식은, 사실상, 그것의 기호들의 정의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할 뿐이다. 만일 그것이 러셀의 정의에 따라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옳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는 “충분하지 못하다.”<sup>33)</sup>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 기호가 세계에 실재하는 어떤 속성이나 관계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충 말해서, **두 개의** 사물에 관하여 그 둘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물에 관하여 그것이 그 자체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말하는 바가 없다.  
(5.5303)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서 동일성이 두 개의 사물 간의 관계라고 말하거나 한 사물이 자신과 지니는 관계라고(또는 한 사물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아무것도 말하는 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은 속성이나 관계를 대상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6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은 세계에 실재하는 속성이나 관계도 아니

---

변형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자신과 공통으로 모든 그것의 속성들을 지니는 한  $x$ 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동어반복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Ramsey (1931), p. 28) 또한 참고: Waismann (1977), p. 28.

<sup>33)</sup> Rosenkrantz(2009)는 러셀의 동일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요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논고』 5.53에 기초한 “이상-언어 방법”에 따르면, 『논고』 5.5302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동일성이 아니라 개별화(individuation)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물론 이는 전혀 옳지 않다.

고, 또 두 대상 간의 관계도 아니며 한 대상의 속성이나 그것 자신과의 관계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는 논리적으로 동치인 명제에서 논리적 상항 ‘ $\sim$ ’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동일성 기호 ‘ $=$ ’도 사라진다는 점에 있었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확장한다. 즉 동일성 기호는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이한 대상들은 상이한 기호로 표현하고 하나의 대상에는 오직 하나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대상의 동일성을 기호의 동일성에 의해서 표현하고, 동일성 기호를 써서 표현하지 않는다. 대상들의 상이성은 기호들의 상이성에 의해 표현한다.(5.53)

이 언급에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며(5.5301),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는 불충분하고(5.5302), 그리하여 사물들에 관하여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5.5303)고 주장한 후에, 실제로 동일성 기호가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개념 표기법에서 동일성 기호는 제거될 수도 있다. 그는 “ $f(a, b).a = b$ ” 대신에 “ $f(a, a)$ ”(또는 “ $f(b, b)$ ”)를 쓰고, “ $f(a, b).\sim a = b$ ” 대신에 “ $f(a, b)$ ”로 쓸 것을 제안하며(5.531), 마찬가지로 “ $(\exists x, y).f(x, y).x = y$ ” 대신에 “ $(\exists x)f(x, x)$ ”를 쓰고, “ $(\exists x, y).f(x, y).\sim x = y$ ” 대신에 “ $(\exists x, y).f(x, y)$ ”라고 쓰는 것을 제안한다(5.532).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성 기호는 제거될 수 있으므로,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므로 동일성 기호는 개념 표기법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5.533)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서는 등식들은 모두 제거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등식들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 $a=a$ ”, “ $a=b.b=c.\supset a=c$ ”, “ $(x).x=x$ ”, “ $(\exists x).x=a$ ” 등과 같은 사이비 명제들은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서는 아예 적힐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안다. (5.534)

그와 동시에 그러한 사이비 명제들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도 사라진다.

러셀의 “무한성의 공리”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

무한성의 공리가 말하려 하는 것은 상이한 의미를 지닌 무한히 많은 이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하여 언어에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5.535)

그렇다면 “그러한 사이비 명제들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이란 (무한성 공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면) 어떤 문제들인가? 나는 바로 그 문제들은 프레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프레게는 “ $a = a$ ”와 “ $a = b$ ”는 인식적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프레게에 따르면, 전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으며, 후자는 (“셋별 = 개밥바라기”의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요컨대 프레게는 전자를 선행적인 것으로, 그리고 후자를 경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러셀은 (앞에서 제시한) “ $a = \text{그 } F$ ”와 ( $a$ 와  $b$ 가 두 개의 대상일 때) “ $a = b$ ”를 (『논고』의 해석에 따르면) 경험적인 명제로 간주하고 있고, “ $a = a$ ”는 동어반복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프레게와 러셀은 어떤 동일성 명제는 선행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동일성 명제는 경험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트겐슈타인의 등식은 경험적인 명제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등식이란 두 기호(상징)에 대한 논리적·구문론적 사용의 규칙이다.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이 세계에 실재하는 속성이나 관계가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파악하는 등식에서는 프레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라진다. 다시 말해 “ $a = a$ ”와 “ $a = b$ ”의 인식적

차이를 설명하는 문제는 애초부터 제기되지 않는다.<sup>34)</sup>

뿐만 아니라 프레게의 물음, 즉 동일성이 관계인지, 또 관계라면 대상들 간의 관계인지 아니면 기호들 간의 관계인지 하는 물음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은 세계에 실재하는 관계가 아니며, 또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상징(표현)에 관한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다.<sup>35)</sup> 등식은 세계나 실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표현)의 사용 규칙이다.<sup>36)</sup>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명시적으로는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이 정의 불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는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러셀이 동일성에 대해 정의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제 이 점을 확인하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은 **주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의미에 관해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나는 그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또한 그것들의 의미를 **앞으로**써 나는 그것들이

34)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논변은 모든 정보를 주는(informative) 동일성 명제의 뜻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p. 174)이라는 White(1978)의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

35)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 $p \therefore p \vee q$ 에서 우리가 쓰는  $\therefore$ 도 =과 동일한 종류의 기호다.” 즉 “그것들은 둘 다 상징들에 관한 것이다.” 참고: Wittgenstein (1980), p. 58.

36) McGuinn(2000)은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래전에 프레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던 바와 같이, 동일성 명제들은 항상 분석적이거나 선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 개념의 인식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간주한다(McGuinn (2000). p. 13). 나는 바로 이러한 무비판적인 생각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  
문이다. (6.2322)

비트겐슈타인은 “두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은 주장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 표현의 의미에 관해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나는 그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그것들의 의미를 압으로써” 이미 그것들이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를 알기 때문이다. 즉 두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 여부를 아는 것이 두 표현에 대해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그러한 선결 조건에 해당되는 것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은 **정의**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두 표현의 의미에 관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들의 의미를 압으로써 그것들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요컨대 두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 여부를 아는 것이 두 표현에 대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 표현의 의미의 동일성을 정의한다면 이는 순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37)</sup>

37)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의 “재탕”(rehash)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던(Wittgenstein (1979a), p. 184) 바이즈만의 “논제들”(Theses)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고』의 실체 개념과 논리적 공간 개념 등에 대한 옳지 않은 서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일성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바이즈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러셀은 동일성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두 대상 a와 b는 만일 그것들이 그것들의 속성들을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동일하다.’  $a = b. = : (\phi):\phi!a. \supset. \phi!b :$  Def. 이 명제는 동일성의 본질을 포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기호들 ‘a’와 ‘b’가 이미 주어져야 하고, 내가 그것들에 한 의미를 줄 때 나는 그것들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이 F. P. 램지의 시도에 대해서도 말해져야 한다. 러셀의 오류는 동일성에 대한 **잘못된** 정식화를 제시하는 것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대체 한 **정식화**를 주려고 했다는 데 있다. 한 명제에 의

## 7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수학은 등식으로 이루어진다.

수학적 방법에 본질적인 것은, 등식들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이다. 수학의 모든 명제가 저절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방법에 기인한다. (6.2341)

수학이 그 등식들에 이르는 방법은 대입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등식들은 두 표현의 대체 가능성을 표현하고, 우리는 등식들에 따라서 표현들을 다른 표현들로 대체함으로써 일정한 수의 등식들로부터 새로운 등식들로 전진해 나가기 때문이다. (6.24)

또한 그에 따르면, “수학의 명제들은 등식들이며, 따라서 사이비 명제들이다.”(6.2b) “논리학의 명제들이 동어반복들 속에서 보여 주는 세계의 논리를 수학은 등식들 속에서 보여 준다.”(6.22)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동일성 기호는 어떤 경우 사라지며, 또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고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다면 수학에서 등식은 모두 제거 가능한 것 아닌가? 이는 결국 수학과 더 나아가 수리 논리학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러셀은 동일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수리 논리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동일성에 대한 러셀의 정의를 어떻게 비판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에 대해 러셀은 자신은 “한때는 이 비판을 받아들였지만, 곧 그 비판이 수리논리학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sup>38)</sup>

---

해 그 명제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인 바로 그것을 정식화하려고 바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Wittgenstein (1979a), p. 243)

<sup>38)</sup> Russell (1959), p. 115.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수 2의 정의를 들어보자. 우리는 어떤 집합이  $x$ 와  $y$ 라는 원소들을 갖고 있고  $x$ 가  $y$ 와 동일하지 않으며, 만일  $z$ 가 그 집합의 원소라면  $z$ 는  $x$ 나  $y$ 와 동일하다면, 그 집합은 2개의 원소를 지닌다고 말한다. 이 정의를 “ $x = y$ ”나 “ $x \neq y$ ” 형식의 표현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물을 지칭(represent)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자들을 사용해야 하고 동일한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른 문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규약에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러한 전문적인 난점을 차치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만일 2개의 사물들이 모든 속성들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면 그것들은 둘로 세어질(counted)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는[이 셈은]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리하여 그것들에 다른 속성들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나 러셀은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결코 “ $x = y$ ”나 “ $x \neq y$ ” 형식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sup>40)</sup> 그는 개념 표기법에서 그러한 표현은 제거 가능하고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는 그러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또한 러셀은 2개의 사물이 모든 속성들을 공통으로 지니는 경우가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동일성을 한 사물이 자신과 지니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거부하고 있는 생각이다.<sup>41)</sup> 동일성은 사물들 간의 관계도

<sup>39)</sup> Russell (1959), p. 116.

<sup>40)</sup> 이 점을 앤스컴 또한 지적하고 있다. 참고: Anscombe (1959), p. 146, Black (1964), p. 291.

<sup>41)</sup> 램지는 이러한 러셀의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모든 그것들의 속성들을 공통으로 지니는 두 개의 사물들을 구분하는 것은, 상이한 이름들을 그것들에 부여하는 것은 그것들이 그러한 이름들을 지님이라는 상이한 속성들을 지닌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쓸모없다. 왜냐하면 비록 이는 완벽하게 참이지만—다시 말해, 나는 주어진 이유 때문에 두 개의 특수한 구분 불가능한 사물들 어떤

아니고 한 사물의 자신과의 관계도 아니다.

요컨대 위의 인용문에서의 러셀의 생각은 오해에 불과하다. ‘~’과 같은 논리적 상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p”와 같은 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으며, 논리학을 할 때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일성 기호가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다고 해서 수학에서 동일성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도 않는다. 또한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은 사물이나 실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기호 사용의 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들의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식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동일성을 사물이나 실재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유념하자. 동일성 진술을 때로는 선형적인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경험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철학적 혼동에 불과하다. 이러한 혼동은 러셀의 무한성 공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한성 공리에 따르면, “n이 어떠한 귀납적 기수이든, n개 항의 개별자들의 집합이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sup>42)</sup> 여기에서 문제는 ‘개별자들’(individuals)이라는 표현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는 수학은 세계에 속하는 어떤 개별자나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수학은 등

---

것이든 알 수 없지만—그럼에도 나는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잘 고려할 수 있거나 심지어 그것들이 어느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두 개의 구분 불가능한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상황을 들어 보자: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나는 동일한 수의 머리카락들을 지니는 사람들이 최소한 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어느 두 사람이 그들인지는 알지 못한다.”(Ramsey (1931), p. 31)

<sup>42)</sup> Russell (2007), p. 131.



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등식들은 기호 사용 규칙들의 표현이다. 반면에 러셀의 무한성 공리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수를 거론함으로써 수학적 명제를 선험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자를 거론함으로써 수학을 경험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는 수학에 경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한성의 공리가 말하려 하는 것은 상이한 의미를 지닌 무한히 많은 이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하여 언어에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5.535c)

또한 동일성에 대한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사유의 극명한 차이는 러셀이 『수학 원리』(1910)에서 사물들 전체를 “ $x = x$ ”를 만족하는 모든  $x$ 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sup>43)</sup> 가령 셋별과 3은 “ $x = x$ ”를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에게는 셋별과 3은 사물(thing)이다. 그러나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혼란의 서막이다. 왜냐하면 셋별은 세계에 실재하는 사물이고, 3은 형식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러셀은 동일성 진술을 한편으로는 표현(상징)의 규칙인 것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에 관한 것으로 사용하면서 거대한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sup>44)</sup>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비판은 수에 대한 프레게의 정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프레게는 0을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은’이란 개념에 귀속되는

43) Russell & Whitehead (1910), p. 229. 참고: Russell (1959),

44) 『비트겐슈타인의 강의, 케임브리지, 1932-1935』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수학 원리』에는 동일성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정의이다. 다른 하나는 사물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일성 진술이다(Wittgenstein (1979b), p. 207). 또한 사물에 관한 것을 말하는 동일성 진술과 대입 규칙을 뜻하는 등식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에 따르면 “러셀의 표기법에 관해서 나쁜 것은  $x = y$ , 또는  $x = x$ 와 같은 명제가 존재한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Wittgenstein (1979b), p. 146)

기수라고 정의하고, 또 1을 ‘0과 같은’이라는 개념에 귀속되는 기수라고 정의한다.<sup>45)</sup> 프레게는 이 정의에서 ‘자기 자신’에 셋별이나 3과 같은 것들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이 프레게나 러셀의 생각처럼 대상이나 사물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그렇게 되면 “ $a = b$ ”나 “ $a = a$ ”는 경험적인 명제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참이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성이 **사물에 관한 것이라면**, ‘a’가 사물을 가리킬 때 “ $a = a$ ”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거짓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아무 **것(사물)**도 없다”를 “ $\sim(\exists x).x=x$ ”로 표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설령 이것이 하나의 명제라고 할지라도, —“사물들이 존재”하되 이 사물들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 명제 역시 참이지 않을까? (5.5352)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아무 **것(사물)**도 없다”를 “ $\sim(\exists x).x=x$ ”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논고』에서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나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미하다(참고: 4.1272). 반면에 **동일성이 사물에 관한 것이라면**, “ $\sim(\exists x).x=x$ ”는 사실을 묘사하는 명제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참이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이 될 것이다. 특히 ““사물들이 존재하되 이 사물들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즉 “ $a = a$ ”가 등식이 아니라 사물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면 어떤 경우에는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를 “ $\sim(\exists x).x=x$ ”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혹자는 다음과 같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45) 프레게 (2003), p. 183, p. 189.

있다. 즉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동일한 사물”, “상이한 사물”(4.243), “대상의 동일성”, “대상들의 상이성”(5.53)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는 결국 한 사물은 그 자신과 동일하고, 또 두 개의 사물은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 결국 이는 동일성이 한 사물의 속성이거나 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빨간 장미를 보면서 우리는 “이 장미는 빨갱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동일한 장미를 보면서 “이 장미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동일하다”는, “동일하다”라고 불리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5.473, 5.4733) 즉 동일성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다. 또한 동일성은 한 사물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성은 사라질 수 있으며, 올바른 개념 표기법에서 제거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항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빨간 장미를 보면서 “이 장미는 이 장미와 빨갱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동일한 장미를 보면서 “이 장미는 이 장미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우리가 대상들과 사물들에 대해 동일성과 상이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가령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한 사람 아닌가? 이 책상과 저 책상은 다른 사물 아닌가? 요컨대 동일성이 한 사물의 속성도 아니고, 또 한 사물의 자신과의 관계도 아니며, 사물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물들에 대해서 동일성과 상이성을 부여하지 않는가?

내가 아는 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논고』에서 제시된 명시적인 대답은 없다.<sup>46)</sup>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및 후기 철학과 연

46) 흑자는 비트겐슈타인이 6.2323(“등식은 내가 두 표현을 고찰하는 관점을, 다시 말해 그 두 표현의 의미 동등성의 관점을 특징지을 뿐이다.”)에서 이미 동일성의 기준에 상당하는 것을 언급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계하여 고찰하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답할 것 인지는 분명하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A”는 “A”와 동일한 기호이다(3.203). 자, 이 언급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언급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은 **동일성**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기호**의 개념이다! 우리는 ‘단어’에 대해서 단어 사례(word token)와 단어 유형(word type)을 구분한다. “철학”과 “철학”은 단어 사례로서는 상이하지만, 단어 유형으로서는 동일하다. 단어 사례는 말하자면 물리적인 측면이나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며, 단어 유형은 한국어의 문법이라는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A”는 ‘A’와 동일한 기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A’와 ‘A’가 동일한 기호 유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기호 사례라는 기준에서 보면 ‘A’와 ‘A’는 상이하다. 기호 유형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A’와 ‘A’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연구실에서 항상 사용하는 책상을 가리키며 “어제의 이 책상은 오늘의 이 책상과 동일한 사물이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일성**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의 개념이다. 만일 사례(token)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제의 이 책상과 오늘의 이 책상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유형(type)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제의 이 책상은 오늘의 이 책상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sup>47)</sup> 바로 이러한 생각이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철학에서 등장하는 “동일성의 기준”(criterion of identity)이다. 시간 및 공간적 연속성이라는 기준에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하다. 반면에 하루 동안에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점

---

나 6.2323의 “관점”은 등식에 관한 것이며, 동일성의 “기준”은 사물(들)이나 (고통과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가 동일성을 부여하는 동일성 진술에 관한 것이다.

47) 물론 이는 매우 거칠게 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 우리는 보다 더 엄밀한 표현으로 동일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에서는 어제의 지구와 오늘의 지구는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일성 진술들은 표현들의 사용 규칙이 아닌 한에서 모두 묘사의 미봉책일 뿐이다. 그것들은 동일성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다른 경험적인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sup>48)</sup>

이제 “A”는 “A”와 동일한 기호(3.203)라는 언급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기호 유형으로서 “A”가 “A”와 동일하다는 것이지, 기호 “A”가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자. 다시 말해 (5.53에서의) “기호의 동일성”이라는 언급은 기호 “A”가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a라는 대상을 5분 후에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a와 5분 후의 a가 시간 및 공간적 연속성이라는 동일성의 기준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5.53에서의) “대상의 동일성”이라는 언급은 대상 a가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동일성 진술들은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일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들의 본질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하여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법칙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레게와 러셀의 생각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경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정의에서와 같이 규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동일성 진술들은 사물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규칙이나 법칙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프레게와 러셀은 동일성 진술들이 사물에 관한 것이면서 또 규칙에 관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또 이를 토대로 수를 정의함으로써 중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49)</sup>

48) 동일성의 기준 없이 사물들 자체에 대해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무의미한 것이다. 그는 『철학적 탐구』 2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은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무익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유희와 결합되어 있는 명제의 예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비트겐슈타인 (2010), p. 157)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명하고 명확한 개념이 요구된다. 바로 그 개념이 등식인 것이다. 등식은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 규칙이다.<sup>50)</sup>

---

49) 사실상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셋별 = 개밥바라기”가 중대한 천문학적 발견을 뜻하기 때문에 경험적 명제로서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파악한 것은 프레게와 같은 정밀한 사상가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셋별 = 개밥바라기”에서 “=”(이다)를 아무리 분석해도 “천문학적 발견”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분석이나 해석에 의해서 만일 도출된다면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든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0) 한 심사자는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동일성 개념에 대한 유력한 해외 연구자들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국내든 국외든 그러한 유력한 연구는 없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동일성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그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박정일 (2013),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프레게 의미이론 비판”, 『논리연구』, 16집 3호, pp. 347-380.
- 박정일 (2014), “『논리-철학 논고』의 일반성 개념에 관하여”, 『논리연구』, 17집 1호, pp. 1-31.
- 박정일 (2015), “프레게와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상 개념”, 『논리연구』, 18집 1호, pp. 1-38.
- 비트겐슈타인 (2006),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옮김, 책세상.
- 비트겐슈타인 (2006), 『청색책 · 갈색책』, 이영철 옮김, 책세상.
- 비트겐슈타인 (2010),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책세상.
- 안토니 케니 (2002), 『프레게』, 최원배 옮김, 서광사.
- 프레게 (2003), 『산수의 기초』, 박준용 · 최원배 옮김, 아카넷.
- Anscombe, G. E. M. (1959),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London.
- Black, M. (1964),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 Frege, G. (1997), *The Frege Reader*, edited by Michael Beaney, Blackwell Publishing.
- Linsky, L. (1983), *Oblique Contex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McGuinn, C. (2000), *Logical Properties*, Clarendon Press, Oxford.
- Muehlmann, R. (1969), “Russell and Wittgenstein on Ident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19 (76), pp. 221-230.
- Ramsey, F. P. (1931),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Logical Essay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Rosenkrantz, M. (2009), “*Tractatus* 5.5302: A Case of Mistaken Identity”,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26 (2), pp. 175-188.

- Russell, B. & Whitehead, A. N. (1910), *Principia Mathematica*, 1, Merchant Books.
- Russell, B. (1959), *My Philosophical Development*,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 Russell, B. (2007),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Cosimoclassics, New York.
- Waismann, F. (1977), *Philosophical Paper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White, R. (1978), "Wittgenstein on Ident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78 (1977 - 1978), pp. 157-174.
- Wittgenstein, L. (1922), *T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Bosen and Henley.
- Wittgenstein, L. (1961), *Notebooks 1914-1916*,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Evanston.
- Wittgenstein, L. (1964), *Philosophische Bemerkungen*, Ludwig Wittgenstein Schriften 2,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Basil Blackwell, Oxford.
- Wittgenstein, L. (1974), *Philosophical Grammar*, translated by A. Kenny, Basil Blackwell, Oxford.
- Wittgenstein, L. (1975) *Philosophical Remarks*, R. Rhees(ed.), translated by R. Hargreaves and R. White,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 (1979a),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translated by J. Schulte and B. McGuinness,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 (1979b), *Wittgenstein's Lectures, Cambridge, 1932-1935*, Alice Ambrose(ed.), Great Books in



Philosophy, Prometheus Books.

Wittgenstein, L. (1980), *Wittgenstein's Lectures, Cambridge, 1930-1932*, Desmond Lee(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y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adership General Education  
Institute

willsam@sookmyung.ac.kr

---

## On the Concept of Identity in the *Tractatus*

Jeong-il Park

---

In Wittgenstein's *Tractatus*, the concept of 'identity' gives rise to several puzzles as follows. What is an equation(Gleichung) in the *Tractatus*? Is an equation identical with so called an identity statement? Frege asserts that identity is not a relation between signs but one between objects or of a thing to itself. Then how does Wittgenstein criticize this Frege's conception? Furthermore Wittgenstein explicitly criticizes about Russell's definition of identity. Then What is the point of such Wittgenstein's critique? In a nutshell, what is early Wittgenstein's idea on the nature of identity? In this paper, I will endeavor to answer these questions.

Subjects: Analytic Philosophy, Philosophy of Logic, Philosophy of Language

Key Words: Wittgenstein, Identity, Frege, Russell, Equation